CORPORATE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회생파산]서울회생법원이 도입한 Pre-ARS·종합적 고려법 정리

Pre-ARS 제도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절차 살펴보기

서울회생법원이 도입한 Pre-ARS(사전 자율구조조정 지원) 제도는 기업이 회생신청이라는 낙인효과 없이 채권자와 협상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연 전환점이 됩니다. 사전 자율구조조정 지원 제도와 하이브리드 구조조저어 절차 등, 기업의 '기사회생'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제도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종합적 고려법, 소기업 회생의 판도 바꿀까?

'종합적 고려법'이 소규모 기업 회생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존 지분율 중심의 형식적 판단에서 벗어나, 기업의 회생 가능성, 이해관계인의 장기적 이익, 기존 경영자의 책임경영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방식입니다. 연 매출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이라면 종합적 고려법을 통해 회생제도의 본질적 목적 구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기업회생절차 M&A, 매수인과 매도인 별 유의사항은

서울회생법원이 오아시스를 인수 주체로 한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습니다. 채권자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했으나, 오아시스와의 M&A를 통한 회생계획 인가가 사업 지속과 근로자 고용 안정 등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업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 추진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매수인과 매도인이 유의해야 할 지점을 짚었습니다.

CASE STUDY
판결분석

출자전환 자본증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회생절차에서 소득 누락과 사기죄 성립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

PROPOSED BILL
최신 발의안

인천회생법원 추가 신설 관련 '법원설치법' 발의

물상보증인 보호 위한 채무자회생법·채권추심법 법안 발의

RESTRUCTURING TRENDS
국내 회생 동향

기업 회생 개시 결정 한 달 미만으로 대폭 축소

MBK, 회생 중 홈플러스에 2천억 추가 투자 발표

위메프, 사실상 파산 절차…회생 폐지 결정

INSIGHTS
언론 속 대륜

KBC광주방송

법무법인 대륜, 글로벌 기업 맞춤형 국제 자문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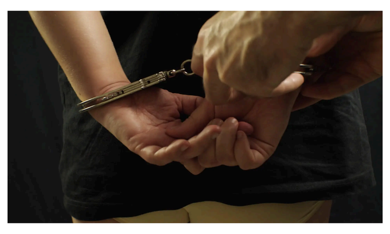
대륜이 미국 뉴욕과 워싱턴 D.C.에 법무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법률 서비스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미아·손동후 미국 변호사를 주축으로 현지 변호사를 영입해 국제 수출입, 미국 법인 설립, 이민법 등 인바운드·아웃바운드 법률 자문 수요에 적극 대응합니다.

한국경제

현실이 된 노란봉투법...되려 성장 기회로 삼으려면

구조조정과 인수합병까지 노사 교섭 대상이 되며, 국내 노사 관계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노란봉투법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업은 하청과 자회사와의 관계 정비, 시나리오별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방인태 변호사가 노란봉투법의 프레임 전환에 대해 강조합니다.

머니투데이



계속되는 美 조지아주 구금 사태 여파... 손해배상 소송 쟁점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구금 사태의 여파가 지속되며, 당시 구금됐던 노동자들이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륜의 손동후 미국법자문 미국변호사가 인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약업신문

의료기 업체 미국 진출 시 알아야 할 내용-FDA 허가 절차·진출 전략

한국 의료기기 업체들의 미국 FDA 허가 절차는 제품 등급별로 복잡합니다. 진출 전략 역시 직납, 간납 방식으로 구분되며 최근 AI 및 IoT 의료기기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업체는 규제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일형 변호사가 본 기고문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CONTACT

곽내원 대표총괄변호사 T. 070-5117-2950	**최한식** 최고총괄변호사 T. 070-7510-2012
김민수 최고총괄변호사 T. 070-5214-2362	**최성문** 수석변호사 T. 070-5221-2805
김원상 수석변호사 T. 070-5117-3709	**김서영** 책임변호사 T. 070-5214-2362

법무법인(유한) 대륜 SJKP LAW FIRM LLP.

대표번호 1800-7905

법률상담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대륜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한)대륜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